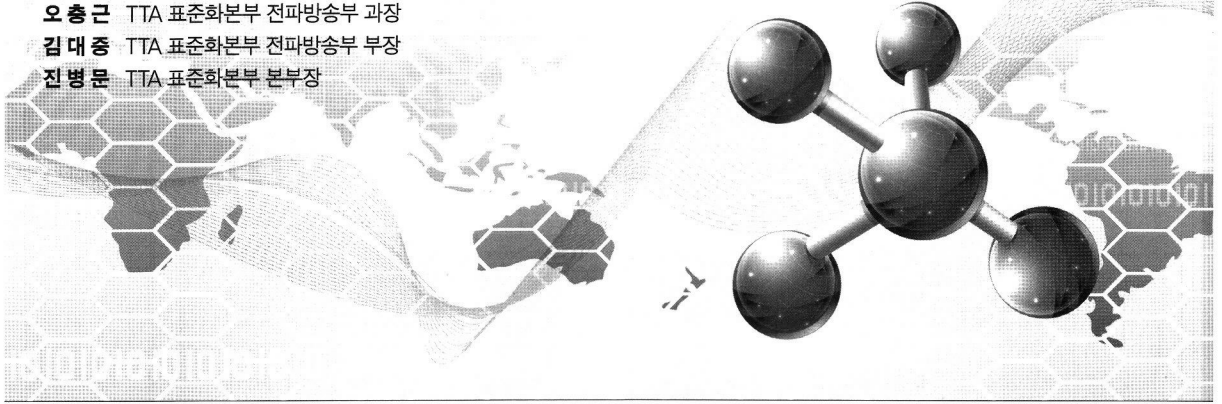


제3차 M2M 표준화 강화 회의

오충근 TTA 표준화본부 전파방송부 과장

김대중 TTA 표준화본부 전파방송부 부장

진병문 TTA 표준화본부 본부장



1. 머리말

M2M(Machine-to-Machine, 사물지능통신) 표준화 강화 국제회의(M2M Consolidation Meeting)는 각 국가, 지역별 표준화기관 및 회원사들이 모여서 M2M 분야에 있어 국제적인 표준 협력체 결성을 논의하는 회의이다. TTA를 비롯한 7개 표준화단체 및 관련 업체의 참석하에 2011년 7월 21일 서울에서 1차 회의를 시작으로, 8월 17일~18일 2차 회의가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되었다. 1, 2차 회의가 아시아, 북미 지역에서 개최되었기 때문에 지역적 균형성을 고려하여 이번 3차 회의는 유럽 지역인 독일 베를린에서 12월 15~16일에 개최되었다. 본 회의에는 7개국 표준개발기관(SDO)¹⁾ M2M 전문가 및 타 산업체 관계자 등 약 55명이 참가하였으며 한국에서는 TTA 진병문 본부장을 수석대표로 삼성전자, LG전자, 모다정보통신 등 9명이 참가하였다.

주요 의제로는 ① M2M 협력체 공식 명칭(Naming), ② M2M 협력체 성명서(Communique) 및 합의문서

(SoU: Statement of Understanding), ③ M2M 협력체 표준화 업무 범위(Technical work scope), ④ 타 산업체 초청을 통한 M2M 협력체 소개 및 참여, ⑤ M2M 협력체 신설 일정 및 마일스톤(Timeline & Milestone) 수립 등이 논의되었다.

2. 글로벌 M2M 협력체 신설 필요성

주요회의 내용을 기술하기에 앞서 간략히 왜 글로벌 M2M 협력체 신설이 논의되고 있는지, 그 배경을 설명하고자 한다. 최근 정보의 수집·활용을 사물 대 사물로 확장하는 M2M과 같은 지능형 융합서비스가 출현하여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된 표준화 활동으로 ITU-T에서는 사물지능통신(M2M, IoT, RFID/USN)에 대한 정의, 개념, 요구사항 및 일반적 구조에 대해 작업하고 있고, 기존 3GPP나 IEEE와 같은 단체에서는 사물지능통신을 위한 무선접속 네트워크 규격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M2M을 위한 서비스 계층 규격을 표준화하는

1) SDO(Standard Development Organization): TTA(한국), ATIS/TIA(미국), ETSI(유럽), ARIB/TTC(일본), CCSA(중국)

글로벌 단체가 없어 지역별·시장별 동일 기능의 M2M 단말 및 서비스 플랫폼이 중복 개발되고, 이들 간의 호환성 또한 보장이 안 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전 세계 SDO는 이런 현 상황을 공동 인식하게 되었고, M2M 분야의 에코 시스템 구축 및 규모의 경제 실현을 목표로 글로벌 M2M 협력체 설립 논의를 시작하게 되었다.

3. 주요회의의 내용

3.1 M2M 협력체 공식 명칭(Naming)

M2M 협력체의 공식 명칭을 확정하지 못해 이번 회의에서 다음의 3가지 안으로 축약하였다.

- ① M2M PP(Partnership Project)
- ② M2M GI(Global Initiative)
- ③ oneM2M

1안의 경우, SDO간 동업정신(Partner)을 잘 반영하여 이해가 쉬우나, 유럽 중심의 3GPP가 연상됨을 이유로 미국(ATIS/TIA)에서 부정적인 상태이다. 이 상황은 북미와 유럽과의 주도권 싸움의 일환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향후 공식 명칭을 상표권 등 법률 검토 후 2012년 1월 10일까지 정하기로 합의하였으며, 각 SDO별로 1표씩을 가지되 중복 투표가 가능한 방식으로 1차 투표에서 2개 안 선정 후, 최종 투표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3.2 M2M 협력체 성명서 및 합의문서(SoU)

M2M 협력체 활동에 대한 전 세계 홍보를 위해 M2M 협력체의 신설 목적, 주요 운영원칙, 출범 일정, 현 참여 SDO 명단을 정리하여 성명서(communique)로 작성하였다. 성명서 초안은 내용을 2012년 1월 10일까지 수정·합의 이후, 각 국가별로 동시에 외부(언론) 홍보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성명서 외에도 현재까지 SDO가 합의한 내용은 SoU 문서로 작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다. 본 SoU는 M2M 협력체의 내부 문서로 각 SDO별로 서명은 하지 않기 때

문에 법적 효력은 없으나, 향후 MoU의 초안 역할을 할 것이다. 본 SoU 문서에 대해 수정 기고를 내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하며, 회의를 통해 합의된 사항은 취합하여 SoU 문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3.3 M2M 협력체 표준화 업무 범위

(Technical work scop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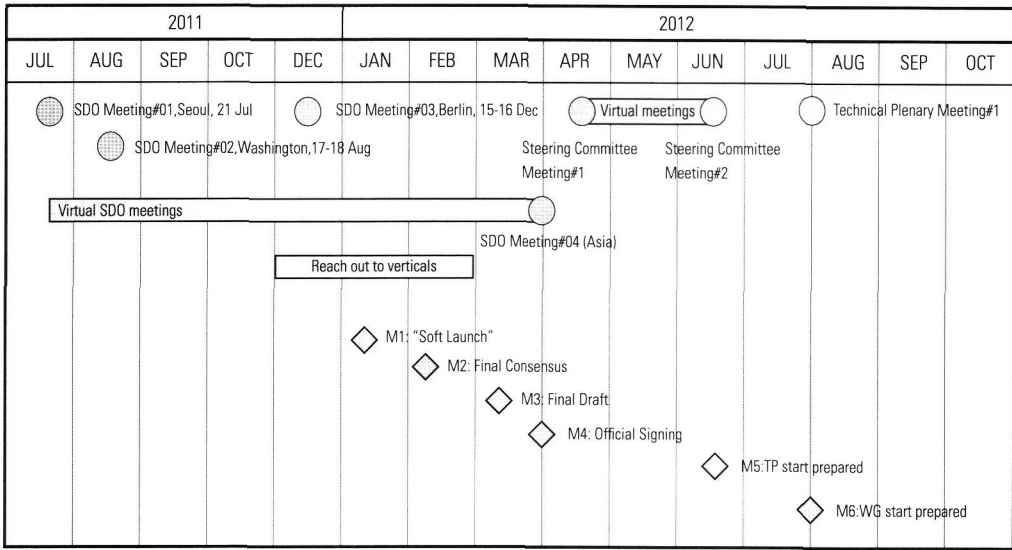
TTA, CCSA는 공동제안으로 M2M 협력체 표준화 업무 범위에 'M2M 단말/모듈 관련 서비스 계층, 애플리케이션 프로토콜 인터페이스'를 반영하였다. 단말/모듈 표준화는 이 분야에 강점을 가지는 단말제조업체(삼성전자, LG전자, 화웨이 등)가 많은 한국, 중국이 향후 M2M 단말기 시장 점유에 유리하게 적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외에도 CCSA는 타 산업체들이 자신의 관리 망을 쉽게 구축할 수 있도록 기존 통신 사업자의 know-how를 전달코자 M2M 단말 관리(management) 표준화를 업무 영역 내로 추가하였다.

3.4 타 산업체 초청을 통한 M2M 협력체 소개 및

참여 논의

현 참여 SDO는 정보통신 분야 외에 타 산업 분야(홈 가전, 전력, 자동차, 유헬스 등)의 표준화기구/산업체의 참여 여부가 M2M 협력체의 성공여부에 직결되는 문제로 공동인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8월 개최된 2차 M2M 표준화 강화회의의 이후, 매주 수요일 국제 전화 회의를 통해 타 산업체에 보낼 초청 발표자료 작성을 진행하였으며, 2011년 10월말에 최종 완료하였다. 이 발표 자료는 SDO를 통해 각국의 타 산업체에 전달되었으며, 이번 독일 베를린 회의에 타 산업체의 참여를 요청하였다. 금번 회의에서는 유럽 내의 홈 가전(HGI: Home Gateway Initiative), 스마트그리드(ESMIG: European Smart Metering Industry Group), 자동차(CCC: Car Connectivity Consortium) 분야의 3개 단체가 참여하여 서로 간의 표준화/연구개발에 대한 정보교류 및



[그림1] M2M 협력체 신설 추진 일정

M2M 협력체 신설에 대한 논의·협력의 장을 갖게 되었다. 그 결과, M2M 협력체에 HGI는 참여 확정의를 주었고, ESMIG, CCC 또한 긍정적 참여 검토 의사를 피력하였다.

3.5 M2M 협력체 신설 일정 및 마일스톤 수립

현재 계획하고 있는 M2M 협력체의 신설 추진 일정은 [그림 1]과 같고, 각 일자별로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주요 마일스톤을 다음과 같다.

- 주요 마일스톤
 - M1(2012. 1. 10): IPR 정책 합의 및 성명서 발간
 - M2(2012. 2. 10): 주요 원칙사항(scope, participation 등) 최종 합의
 - M3(2012. 3. 9): M2M 협력체 출범을 위한 합의문 작성 완료
 - M4(2012. 3. 30): 참여 회원사간 공식 서명
 - M5(2012. 6. 19): Technical Plenary 회의 시작 준비
 - M6(2012. 7. 31): Working Group 회의 시작 준비

4. 맺음말

금번 3차 회의에서 M2M 협력체 공식 출범 일정 수립, 성명서 및 SoU 작성 등 주요 사항을 합의함에 따라 참여 조직 원칙, 조직 구조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매달 2~3차례의 정기적인 국제 전화회의 개최를 통해 정리할 예정이다. 차기 4차 회의는 2012년 3월 28~29일 양일간 ARIB/TTC 주최로, 일본 도쿄에서 개최되며 본 회의에서 M2M 협력체 공식 출범 여부를 최종 확정 후, 3월 30일에 참여 회원사간 공식 서명식을 가질 예정이다. 본 M2M 협력체 설립을 위한 논의는 2000년경에 있었던 3GPP 이후 두 번째 본격적인 시도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협력체가 공식 설립이 된다면 M2M 분야의 규모의 경제 실현, 세계적인 상호호환성 확보 등 M2M 시장 및 관련 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